

광주시 경제난 극복 비대위 가동

기업·노동계 등 각계 32명으로 구성 실무단도 결성...경제 살리기 총력전

광주시가 '지역경제살리기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나선다. 최근 국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극복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10일 "경제계와 학계, 연구기관, 기업계, 노동계와 소상공인 등 지역대표 32명으로 이 달중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위원장인 박광태 광주

시장과 송재선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권영순 광주지방노동청장 등 유관기관,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한국은행 등 금융계,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등 기업인과 전남대·조선대 산학협력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책위는 지역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 각층의 여력을 수렴하

게 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김윤석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 6개 반을 구성해 대책위에서 결정된 안건과 각종 시책의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맡도록 했다. 실무추진단은 생활경제지원반,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반, 건설지원반, 주택경기활성화반, 생활보호반, 예산지출지원반, 경제자문반 등으로 짜여진다.

대책위는 시정 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점검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8일 시청에서 30여개 중소기업체와 유관기관·단체가 참

여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음달에는 박시장이 산업단지별로 2~3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산업현장 방문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장인 김윤석 경제부시장은 "현 경제상황을 IMF사태에 비견되는 비상 위기상황으로 보고, 실물경제 위기 극복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서민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시장은 지난달 30일 간부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광주는 산업기반이 취약해 시민들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더 느끼게 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에 전국 첫 지하철역 도서관

도시철도공사 남광주역에 개설 도서 5,500여권 비치 무료 이용

광주 지하철역에서 무료로 책을 읽고 빌려볼 수도 있게 됐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문화사랑 실천봉사단과 함께 11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역에 '메트로 열린 도서관'을 개설한다.

전국 지하철 가운데 최초로 지하철 역사(驛舍) 안에 설립되는 이 도서관에는 광주교통문화사랑 실천봉사단이 보유한 4천여권과 광주시립도서관이 지원

한 1천500여권을 포함, 모두 5천5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된다.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광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빌린 책은 가까운 지하철역 역무실에 반납하면 된다.

임영근 광주교통문화사랑 실천봉사단 대표는 "지역민의 정서 함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린 공간인 지하철역에 도서관을 개관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영원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지하철역이 문화시민의 지식정보 나눔의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기본·원칙에 충실...발전 기틀 만들자"

전호중 조선대 총장 취임 1주년 담화

전호중(사진) 조선대 총장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금, 구성원 모두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력 증진에 피나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 등으로 대학들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실패와 법인 정상화 지연으로 인해 조선대는 다른 대

학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실을 직시했다.

이어 전 총장은 "악조건에서도 지난 1년간 각자 위치에서 노력했고 장기발전 계획을 기초로 내실을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단란계를 해결하고 발전의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총장은 취임 이래 59억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했고, 지난 5월에는 미래의 비전을 담아 '장기발전계획 2015'를 세웠다. 교원채용제도를 개선, 우수교원 60명을 확보했으며, 기



초의 과학부와 글로벌 법학과 등 선도학과를 신설했다.

207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따냈는가 하면, 84건의 연구과제(38억5천만원)를 유치했고, 연구 활성·집중화를 위해 24개 연구기관을 8개 연구원으로 통합하는데 성공했다. 내년부터는 세계 저명 학술지 게재 논문 장려금과 학술지 인용지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성필기자 camus@

내년 추석 항공권 예약 아시아나 오늘 오후 2시

아시아나항공은 11일 오후 2시부터 내년 추석연휴(10월1~5일) 정기편 항공권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약접수는 국내선 전 노선(에어부산 공동 운항편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편도기준 320편(총 공급액 4만9천908석)이다.

예약은 아시아나항공 예약 대표전화(1588-8000)와 인터넷 홈페이지(www.flyasiana.com)를 통해 매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1인당 예약 가능한 항공편 좌석 수는 4석으로 한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명절 귀성표를 찾는 고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설날 연휴는 전년 4월 둘째 주 화요일에, 추석연휴는 전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예약을 받고 있다. /연혜뉴스



장애인정보화 촉진결의대회 (사)광주시장애인정보화협회는 10일 북구 동림동 광주장애인복지관에서 '제5회 광주시 장애인정보화 촉진결의대회'를 열고 중고 컴퓨터를 장애인 정보화교육용으로 수리한 '사랑의 PC' 300대를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합시다 수능 직후 가두 캠페인

광주시와 광주YMCA 청소년유해감시단은 오는 13일 대입 수능 시험 종료 직후 총장로·급남로 일대에서 '청소년보호 유해환경 추방 및 학교폭력예방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

'드림 스타트!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

는 시와 자치구, 교육청,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 홍보활동을 펼친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정책관실(062-613-2295)이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062-955-8383)으로 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 동구동 1833-2416 | 1062-227-9940

총장점 | 금남동 200-12 | 1062-227-9970

등대바다

우수한 양어전공 필드

www.dongdaebada.com

062)671-1199

홍익 프리리얼 워터

봉/선/동 아이엘리시아

수능후가두캠페인 | 홍보차, 세미, 리플, 모뎀 및 행사(마스크, 깃발)를 배포

www.hongik.com

062)671-1199